



즐거운 '뇌'



뇌의 신비가 풀리면 인간존재의 비밀이 모두 드러날까. 많은 과학자들은 '그럴 것'이라는 답을 내놓는다.

옛 그리스인들은 인간 감정이 간장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좌우된다고 하여 우울증을 '검은 담즙', 즉 멜란콜리아라 했고, 동양권에서는 침착 냉정형의 사람을 담즙질(膽)이라 불렀다.

네르베르의 최근작소설 '뇌'에는 이른바 뇌 속 '최후의 비밀'로 불리는 부위가 이야기 전체에 깔려있다.

하지만 지난 5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실험은 소설내용처럼 '최후의 비밀'로 분류된 것도 없고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도 했다.

김정자(연론인·본지 논설위원)

최근 마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중국과의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지 않은데 있지만 사실 마늘은 언제나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었다.

고 있다. 여기에 약 2만4천톤을 지난 해에 수입했으니, 이는 1인당 약 10kg을 소비한다는 셈이 된다.

온다면 우리 마늘 농가의 장래는 불문가지다. 마늘은 품질이 매우 중요하다.

특 계속적인 협상을 하라는 소리가 높다. 또 WTO의 규정으로도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이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품종을 선호하는 것은 품질의 우수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확실히 그 지역 재래종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자 세상보기



정희돈 영남대 교수 원예학

농산물 특화로 우리 것 지켜야

늘파동은 우리 농산물전체의 문제를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약 35만 농가가 45만ha에서 45만톤의 마늘을 생산하

않으므로 육종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종육 육종에 의한 획기적 다수확 품종을 기대할 수도 없다.

아니라 강장제로도 높은 약리효과가 있고 피로회복에도 탁월한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영 방법이 없는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 재래종을 살리는 일이다.

우리 국민이 주시적으로 하고있는 곡물은 74%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을만큼 자급율이 낮다.

독자의 소리

'북한산도로 건설중지' 판결의미 '재산권보호'로 축소해석 안돼

그동안 논란이 뜨겁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한산국립공원 통과구간에 대한 공사중지가 재판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지만, 시행사가 공사강행 방침을 밝히며 따라 소모적인 충돌과 논쟁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도로 중 교량부분이 경제지치를 무단으로 침범하게 되는 흥법사의 경우도 비슷한 취지의 공사중지를 결정했다.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인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여영학 변호사 환경연합 법률센터 부소장

직 헌법상의 환경권을 구체적인 사법상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공의 이익이나 환경적 이익을 민사상 가처분의 근거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현대불교신문을 읽고 수행·교학체제 확립 시급

조계종이 수행과 교학체제를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

변 해보았지만 막연하기만 했다. 수행하기에 앞서 배워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3보1배' 온몸으로 보여준 법문

스님들이 북한산을 살리기 위해 평범아래 아스팔트 바닥에서 '3보1배'를 했다는 보도를 보고 너무 놀라고 마음이 아팠다.

을 우리는 일에만 익숙할 뿐 나서서 자연을 지키려는 적극적인 행동과 마음을 갖지 못한 재가불자들에게 스님들의 3보1배는 온몸으로 보여준 '법문'이었다.

불자의 생각. 사찰의 공적기능. 문화적 기능 가장 커 51.7%. 30명(51.7%)의 불자들이 이같이 밝혔다. 또 11명(19.0%)은 역사적 기능, 8명(13.8%)은 교육적 기능, 7명(12.1%)은 환경보호 기능 2명(3.4%)은 기타 라고 응답했다.

3일 안에 깨달는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수련과정.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련 동안 수행에도 인기 힘든 깨침을 3일 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제명공고. 성명: 유점동, 법명: 향산. 직위: 전북교구 태고종 종무원장 전주 보문사 임시관리인. 위분은 전 전북종무원장이자 전 태고종 중앙종회 의장이었던 유남파스님의 친동생으로 출가 이후 스승의 큰 은혜속에 연맹해왔던 분으로서 형(유남파스님)의 힘에 의존하여 스승을 폄박하고 문도의 화합을 저해하는 등 문도로서 본분을 망각하였기에 문도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